추수감사절 설교 | 누가복음 9장 10절~17절

빈들에서의 감사



권순달 목사
총회총무

얼마 전 상주에 계신 연로하신 사촌 큰 형님께 전화를 드렸다. 연휴 기간에 아이들과 함께 가서 곶감 감과 하우스 포도 추수하는데 손을 보탤 요량이었다. 돌아온 답은 올해 날이 더워 감은 다 떫어졌고, 포도는 털 익었으니 안 내려와도 된다는 것이었다. 인생은 언제나 감사와 아쉬움이 교차하고 공존한다.

누가복음 9장 10~17절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이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에 날이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 많은 무리들이 굶주려 있다. 제자들의 눈에는 군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답이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이 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방책은 "주님, 방법이 없으니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어 각자 알아서 먹을 것과 잘 곳을 해결하게 하소서."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아주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다.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이다. 배달앱도, 대형마트도 없던 시절, 황량한 빈 들에서 수천, 수만 명의 군중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곧 현실이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면 "너희가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16절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신 '축사'(율로게오 εὐλογέω)는 '축복하다, 감사하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빈 들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 하나님께 드리신 감사의 기도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손에 들려진 있는 것' 때문에 드리는 감사였다. 사람들은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원망한다. 반면, 예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손에 들려진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둘째, 되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되어질 것'으로 감사하셨다. 현실은 빈들과 굶주린 사람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주님은 미리 감사하셨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고, 절망만 가득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줄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다. 기도가 응답 되고 결과가 눈에 보여서 하는 감사가 아니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기에 드리는 믿음의 감사였다.

셋째,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였다. 예수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셨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다(합 3:17-19).

믿음의 사람은 환경 때문에 웃고 우는 사람이 아니다.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다. 내 삶이 빈들과 같아도, 당장의 대안이 없어도 감사의 열쇠를 돌려야 한다.

혹시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궁핍한 '벳새다 들녘'과 같은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고, 열매 없는 황량한 빈들 같은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가? 비록 내 손에 쥔 것이 보리떡 다섯 개처럼 초라해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답은 저 너머 대형마트나 넉넉한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답은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공로에 있다.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버려두고 터진 웅덩이를 찾는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 빈들에 있다면 말씀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라. 예수,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추수의 감사, 이웃과 창조세계로 확장해야"

기환연, '2026 생태적 추수감사절' 자료집 배포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이하 기환연)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웃과 창조세계를 돌아보며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생태적 추수감사절'을 한국교회에 제안했다.

기환연은 최근 『2026 생태적 추수감사절 자료집』을 제작·배포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데서 나아가 그 풍요를 이웃과 모든 생명에게 나누는 신앙적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자료집은 추수감사절을 단순히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생명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환연은 인간이 누리는 일용할 양식과 삶의 자원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햇살과 비, 비옥한 토양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어진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에는 인간의 수고와 결실뿐 아니라 자연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이웃과 생존을 위협받는 피조물, 미래세대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기환연은 "창조세계의 풍요로움이 신음하는 피조물과 미래세대에까지 흘러가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제시하며,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일이 오늘날 교회가 실천해야 할 신앙적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자료집은 신명기 26장 11절을 중심 성경 말씀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족과 이웃, 공동체가 함께 누리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생태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교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년·청소년·어린이를 위한 세대별 설교문과 공동기도문을 수록했다. 각 세대가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 생태적 감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기도문에는 창조세계의 아픔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비와 생명의 회복을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풍요를 소유와 소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생활방식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적 책임을 되새기도록 했다.

기환연은 추수감사절이 한 해의 결실에 감사하는 절기를 넘어, 창조세계에 깃든 생명의 풍요로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모든 생명과 나누는 신앙적 실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에서 환경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돕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82년 창립된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녹색교회 운동과 생태환경교육, 기후정의 연대 활동, 몽골 은총의 숲 조성 등 창조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6 생태적 추수감사절 자료집』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수능 D-16… 수험생이 꼭 챙겨야 할 5가지

취약 유형 점검 · 컨디션 관리 · 시험 규정 숙지 필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가운데, 수험생들의 막바지 학습 전략과 시험 당일 유의사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시교육 전문기업 이지수능교육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가지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취약 유형 집중 점검이다. 새로운 고난도 문제보다는 기존 모의고사에서 반복적으로 틀린 문제를 복습하고, 과목별 핵심 개념과 시간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수면과 컨디션 관리다. 무리한 밤샘 공부를 피하고 기상과 식사 시간을 시험 일정에 맞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준비물과 반입 금지 물품 확인이다.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시험장 위치와 이동 경로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넷째, 시험 규정 숙지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지켜야 한다.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다섯째, 대학별 면접·논술 대비다. 수능 이후 진행되는 대학별 고사 일정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확인하고, 지원 대학의 출제 유형과 평가 방식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 직전에는 학습량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취약점을 보완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 시행되며, 성적은 12월 11일 통지될 예정이다.

